



인물로 보는 근현대 한국 불교

Historical figures of Korean Buddhism in modern times

1주차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지혜경 교수



목 차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 1 오리엔테이션
- 1-1 선불교의 이해
- 1-2 경허의 깨달음
- 1-3 경허와 소
- 1-4 경허의 사상
- 1-5 선불교의 중흥

III	퀴 즈	32
-----	-----------	----

IV	토 론	34
----	-----------	----

V	참고문헌	35
---	------------	----

I. 학습안내

1

강의개요

한국사에서 근대시대는 전통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 오던 격변의 시대이다. 한국의 전통종교였던 불교도, 당시에 모든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왔다. 본 강의에서는 근대시대에 활약했던 한국불교사상가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삶을 통해 불교와 한국의 근대시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해본다.

2

학습 목표

1. 11명의 불교인들의 생애와 삶을 통해 한국 근대시대를 탐색한다.
2. 한국 근대시대를 살아간 불교지식인들의 삶을 통해 다양한 선택들을 살펴본다.
3. 한국 근대 불교의 주요 인물들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1주차 학습 목표

1.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이해한다.
2. 한국 선불교에서 경허선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3. 무애행의 한계와 의미를 살펴본다.

3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한국 선불교의 증흥조, 경허
2주차	근대 지식인들의 멘토, 박한영
3주차	근대 불교의 개혁가, 한용운
4주차	실천불교 운동의 선구자, 백용성
5주차	조선의 정체성을 탐구한 최남선
6주차	근대의 비구니 스님들
7주차	원불교의 개조, 박종빈
8주차	독립운동가, 김법린
9주차	성과 속을 넘나든 지식인, 백성욱
10주차	신여성에서 대선사가 된 김일엽

II. 강의

1

오리엔테이션

안녕하세요.

인물로 보는 근현대 한국불교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지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한국의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근대시대 때 활동했던 11명의 불교인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와 불교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근대시대와 불교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스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경허스님은 그동안 단절되어왔다고 알려진 한국의 선불교를 살아있는 선불교로 되살렸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선불교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경허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근대 조선 지식인들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졌던 박한영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또 박한영 스님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 교리불교 즉 교학불교의 전문가가 되어 지식인들의 스승이 되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으며, 매우 개혁적이었고 급진적이었던 스님이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백용성 스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불교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스님입니다. 당시 한문으로 되어 있던 불교의 경전들을 한글로 처음 번역하신 분이구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불교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문필가이며, 또한 나중에 친일한 것으로 유명한 최남선입니다. 그는 불교 승려는 아니지만,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서 3.1독립운동선언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두 명의 중요한 비구니 스님, 법희 스님과 수옥스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대에 들어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비구니 스님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교육체계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비구니 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비구니

수행을 중흥시킨 법희 스님과 당시 비구니 최초로 일본 유학을 갔다와서 유명한 불교 강사로 활동한 수옥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불교를 창시한 박종빈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는 전통 불교 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 기반한 신흥교단으로 불교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불교에 기반한 신흥 종교를 세우게 되었는지, 불교와 원불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지 이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에서는 김법린을 아홉 번째 강의에서는 백성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유럽에서 불교학을 공부한 학자들로 유명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김법린은 당시 서구의 불교학 공부의 방법론을 배워와서 조선에 소개하였고, 백성옥은 서구 철학과의 비교철학을 통해 불교철학을 현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해방 이후 국가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교육 행정가로서도 활약했습니다.

열 번째 강의에서는 김일엽 스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김일엽 스님은 근대시대에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주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를 만나 결국은 불교 승려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 수행자로서의 깨달음의 내용들을 삶의 문제 속에서 풀어주는 문필가이며 승려로서 생활합니다.

이상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근대 시대에 한국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으며, 불교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시 불교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 근현대의 불교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대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불교인들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1-1

선불교의 이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지혜경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허 스님의 생애를 공부하기에 앞서 선불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는 경전 공부보다 명상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의 한 학파입니다. 선불교의 ‘선’이란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 팔리어로는 ‘잔야’입니다. 이를 한자로 적은 발음이 ‘선나’였고 줄여서 ‘선’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의 한국식 발음이 ‘선’입니다. 중국 식으로는 ‘찬’, 일본식으로는 ‘젠’이라고 발음합니다. ‘젠’이라고 말하니 조금 익숙하실까요? 영어로 표기할 때 ‘선’을 ‘젠’이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선불교를 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불교를 처음 미국 지식인들에게 소개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 일본인 스즈키 다이세츠이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다이세츠는 스님이 아니라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불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던 학자입니다. 다만 스님이 아니어도 선 수행을 열심히 한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선불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예술가들이 그의 강의에 참여하여 감화를 받았고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그와 교류하며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피아니스트 존 케이지, 미국 히피 문화의 창시자 잭 케루악, 심리학자인 칼 융, 에리히 프롬 등이 그곳에서 함께했습니다.

선이란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로 마음이 잡다한 생각 없이 차분하게 유지되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명상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불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선불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도중에 갑자기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부처님께서 왜 빙그레 웃으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하가섭이라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가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냥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 빙그레 웃고 빙그레 웃는 사이에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선 불교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가르침은 경전이나 문자를 통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내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이런 의미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미소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이 통하지 않고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가르침을 교외별전, 경전의 문구를 통하지 않고 따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의 한계를 알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분립 문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많습니다.

자유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자유라는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더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도 ‘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마다 떠오르는 강아지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색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무섭게 생긴 도베르만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바로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고 언어로 한정된 어떤 사고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에 전달되었을까요? 6세기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불교가 한반도, 당시에는 통일 신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선의 가르침을 배운 마하가섭의 28대 제자이며 중국에서는 선종을 시작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그의 외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달마대사는 매우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의 모습은 미소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를 고향에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되돌아가서 가져오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몸을 놔두고 영혼만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조용한 동굴을 발견하여 몸을 놔두고 영혼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행할 곳을 찾던 도가의 도사가 그의 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사가 너무 못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마의 아름다운 몸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달마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 몸을 가지고 떠나 버립니다. 달마대사가 돌아와서 보니 자신의 몸은 보이지 않고 못생기고 우락부락한 몸만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림의 모습으로 전해져 옵니다.

꽃을 들고 미소로 서로 대화했다는 이야기, 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이 선종의 특징과 선종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한 핵심적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꽃을 들고 미소로 서로 대화했다는 이야기는 선불교가 체험과 수행을 중시하는 학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몸이 중국인 도사와 바뀐 이야기는 외래 종교였던 불교가 중국의 언어와 표현법을 통해 중국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해졌을 때는 많은 이들이 도가와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가의 개념들을 가지고 불교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가적 표현법들과 세계관이 불교와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 학파가 선불교입니다. 도사의 몸을 입은 달마대사는 도가의 옷을 입은 불교가 선불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선불교는 그의 제자인 혜가, 승찬, 도신을 거쳐서 다섯 번째 세대의 제자인 오조 홍인에 이릅니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계보를 중시합니다. 마치 집안의 대를 잇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달마, 혜가, 승찬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 아들, 손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특히 손자 관계에 있는 경우 법손, 진리의 손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집안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는 것이 선불교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선불교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선불교의 전통이 사라져갈 때 경허 스님이 이를 다시 되살려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이후 한국 근대 선불교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결국 경허 스님의 대를 이은 이들이 한국 선불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을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선불교는 중국 선불교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 이후에 선불교는 북종과 남종이라는 두 학파로 나뉩니다. 북종은 그의 수제자였던 신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파이고요.

남종은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되어 신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어 홍인의 뒤를 이은 혜능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홍인이 머물고 있는 절에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나무꾼 출신 혜능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그를 절 방앗간으로 데려가 방아를 짚게 합니다.

하루는 홍인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깨달음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합니다. 당시 홍인에게는 오랫동안 공부한 아주 뛰어난 제자 신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수의 눈치를 보느라 글을 내지 않는 것 같자 신수는 밤에 남모르게 남쪽 복도 중간 벽 위에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깁니다.

‘몸이 보리 나무라면 마음은 받침대 있는 밝은 거울이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다음 날 홍인이 이를 보고 신수가 쓴 것임을 눈치채고 ‘깨달음의 문 앞까지는 왔으나 아쉽다.’

그러나 이 계송을 외우면 깨달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절에 있는 스님들이 모두 신수가 지은 계송들을 외우고 다니게 됩니다.

혜능도 그 계송을 듣게 됩니다. 그 계송을 듣자마자 혜능은 글 쓴 사람이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깨달음에 대한 계송을 지어 신수의 계송이 쓰인 벽 옆에 써놓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며 맑은 거울 역시 틀이 없으니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있겠는가.’

다음 날 홍인은 이 시를 보고 깨달음의 체험을 한 이가 쓴 글 즉, 혜능이 지은 것임을 눈치챩니다. 하지만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습

니다. 그리고 밤중에 조용히 혜능을 불러서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핵심 가르침을 이야기 해 주고 그가 금강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자 그를 후계자로 정하고 도망하게 합니다.

수제자였던 신수와 글자도 잘 모르는 나무꾼인 혜능 중에서 깨달은 사람은 혜능이라는 것,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홍인 스님은 수석 제자라는 지위나 그 사람의 출신과 상관없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입니다. 권위와 기득권을 신경 쓰지 않고 깨달음 그 자체,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출신이나 배경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신수와 혜능의 계승을 좀 더 살펴보면 신수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먼지가 끼어 더럽혀지지 않게 항상 닦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혜능은 ‘마음이란 게 잡히지도 않으니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과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닦을 필요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수가 생각하는 마음, 혜능이 바로 보아야 한다는 마음은 부처의 마음입니다. 즉, 자애롭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꾸 우리의 나쁜 습관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더럽혀지기 때문에 닦아야 한다는 게 신수의 가르침입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의 마음인데 자꾸 나쁜 마음이 덮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닦아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혜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혜능의 가르침입니다.

신수의 수행 방식은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여 ‘점수’라고 합니다. 혜능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본래 내가 부처라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하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여 ‘돈오’라고 합니다. 점수수행을 강조하는 신수의 선을 복종선, 돈오를 강조하는 혜능의 선을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혜능의 남종선은 선불교의 주류가 됩니다. 이후 다양한 학파들로 세분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제종입니다. 임제종은 임제의현이라는 스님의 선 수행법과 선 지도법을 따릅니다. 임제선의 특징은 대상의 권위와 관념을 넘어서서 나의 본래 모습인 부처의 모습을 볼 것을 가르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급진적인 이야기가 임제선에서 나오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권위와 관념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경우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팔로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제선은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체험을 중시한다고 가르칩니다. 임제선에서 제자를 지도하는 방식은 매우 거칩니다. 몽둥이로 때리기, ‘할’이라고 벼락같이 고함지르기, 이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벼락같이 고함지르는 ‘할’이 임제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할’은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선 수행하는 이가 자신의 본래 모습인 자기 안의 부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헤맬 때 다시 길을 찾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임제종 계통에서는 간화 수행법을 제시하는데 화두 또는 공안이라는 선어록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경전을 읽다가 궁금한 구절 또는 먼저 깨달은 스님이 주는 구절의 의미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이 구절에 대한

의심이 풀리면서 부처인 나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를 간화선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기에 이 간화선 수행법이 유행하면서 임제종은 한국 선불교의 주류 학파가 됩니다. 그 이후 조선 시대에 이 전통은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나 후대로 올수록 이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불교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경허 스님입니다. 경허 스님은 이를 통해 한국 선불교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고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도왔습니다. 그의 제자들로는 한국 조계종을 이끌어온 만공 스님, 수월 스님, 혜월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한국 불교를 이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조계종 종정 스님인 진제 스님은 경허 스님, 혜월 스님, 운봉 스님, 향곡 스님, 진제 스님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고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에 힘썼던 송산 스님도 경허 스님, 만공 스님, 고봉 스님, 송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대표 불교 종단인 조계종은 육조 혜능이 머물렀던 조계산에서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1-2

경허의 깨달음

이번 시간에는 경허 스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의 삶과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경허 스님의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살림살이에 어머니가 아이를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고아원이 따로 없던 조선 시대에는 이처럼 가난한 집의 아이들 또는 일찍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아이들을 절에 맡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절에서 생활하던 경허 스님은 1857년 9살 때 정식 승려는 아닌 사미로 출가 아닌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미는 일종의 수습 기간을 갖는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정식 스님이 되고 1862년 계룡산 동학사로 가서 이만화 스님에게서 불교 경전을 공부합니다.

방한암 스님이 쓴 경허 스님의 행장 즉, 일대기에 의하면 이만화 스님에게서 공부하던 경허 스님은 공부를 배운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글을 짓고 만화 스님과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경허 스님은 또한 암기력이 좋아서 경전이나 경전의 주석 내용을 금방 외웠으며 논리정연하게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 외에도 유학이나 노장의 사상에도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영민하였던 경허 스님은 23살 때 만화 스님의 뒤를 이어 동학사에서 다른 승려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처음 가르친 것은 ‘화엄경’이었는데 강의를 잘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르다가 31세 때에 예상치 못한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 스승인 계화 스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중 천안에서 저녁 무렵에 큰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 하룻밤 묵게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집집마다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스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호통치듯 말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전염병이 크게 돌아 걸리기만 하면 서 있던 사람도 죽는 판인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죽는 곳에 들어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온몸과 마음을 덮쳤고 이에 스님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커다란 나무 아래로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비바람은 심해지는데 몸은 젖어서 춥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옮았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 속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사일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라는 의미로 경전을 강의할 때 그렇게 강조해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니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생각은 커녕 죽음이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온 말이 부끄럽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서 자신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고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이 맞닥뜨리니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거나 죽은 뒤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죽음에 대해 잘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두려움에 죽기 싫어합니다.

남들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 어찌니 하면서 좋은 훈수를 두는 사람도 막상 자신의 연애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를 손쉽게 말과 행동이, 마음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무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는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불일치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지만 경허 스님은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삶과 죽음이 같다고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삶이라든지 죽음이든지 그 모든 건 사실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처럼 시간은 그냥 해 뜨고 달 뜨고 흘러가는 것인데 인간은 시간을 계측하여 시, 분, 초로 나누고 또 그것을 묶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분리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인간 사회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해라고 말합니다. 다른 달력법인 달의 움직임에 기반한 음력에서 1월 1일은 양력의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금 같은 시간 개념은 근대 서양에서 생긴 것입니다. 시간을 분, 초로 나누어 썰 수 있는 시계의 개발로 세상은 분, 초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이 약속을 잡을 때 해 질 녘 무렵에 마을 어귀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시계가 있었어도 조선 시대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기에 1시간의 단위가 지금의 2시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 분, 초 단위의 약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이 바뀐 것은 근대 시대에 기차길이 만들어지고 기차가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약속한 시간을 재는 방식일 뿐인 시간이 실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진짜 연도가 바뀌는 것일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죽음과 삶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 바뀐다는 이유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일 뿐이기에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만 실제 죽음에 맞닥뜨려 그렇게 생각하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시의 경허 스님은 죽음을 막을 수도, 두려움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경허 스님은 스승을 만나러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머릿속에 죽음과 깨달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동학사로 돌아옵니다.

동학사로 돌아온 경허 스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문을 틀어 잠그고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여사미거 마사도래’ 즉, ‘당나귀의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가왔다.’라는 선문답의 문구를 가지고 수행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화두 수행입니다. 화두는 앞에서 말했듯이 내 마음에 남는 경전의 구절을 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두

에 집중하며 하는 명상 수행이 간화선 수행입니다.

간화선이란 화두를 보는 선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 순간순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화두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화두에 집중하는 상태를 ‘화두를 든다’, ‘화두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 화두를 잡고 계속 화두에 대한 의문에 집중하여 명상을 하다 보면 의심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모든 생각이 나라는 생각도 없이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오롯이 이 의문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의심 덩어리와 내가 하나 되어 점점 의심 덩어리가 커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짝 막혀 가슴이 답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은산철벽의 상태’라고 합니다. 은으로 된 산이 사방에 둘러싸여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똘똘 뭉쳐진 화두 덩어리가 계속 집중하고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져 버리면서 갑자기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며 화두를 깬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 잡는 화두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되고 있는 과거 선사들의 말에서 찾습니다.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부르는데 본래 의미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문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 용어가 불교에서 사용되면서 선사들의 말 중에서 모범 삼을 만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말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화두는 이전에 선사들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모아 놓은 책 즉, 선어록에서 찾습니다. 그 책으로는 ‘무문관’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선사들의 말을 모아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무문해개이면서 또 무문관의 의미가 문 없는 관문이라는 모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무문관이라 이름 하였을 텐데 이 같은 언어 사용의 이중성, 자유로움,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선불교의 전통입니다. 따라서 많은 선불교의 수행자들이 무문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합니다. 무문관에는 총 48가지의 이야기가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단어, 개념, 내용을 요약한 문구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화두는 단어나 짧은 문구로 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그 핵심 단어들을 화두로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화두로는 ‘무’, ‘마삼근’, ‘뜰 앞의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스승인 선사가 제자에게 화두를 제공해 주고 제자는 그 화두를 받아서 명상, 참선하는 것이 상례지만 경허 스님은 당시 선 수행을 지도해 줄 스승이 없었기에 스스로 화두를 찾아 참선하였습니다. 경허 스님이 사용한 화두는 당나라 시대 위산 선사의 제자인 영운 선사의 일화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선사는 선을 수행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한 스님이 선사에게 불교의 대의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운 선사는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나귀의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또 밀려왔다는 것은 생각이, 번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경허 스님이 그런 경험 속에서 이 화두를 잡은 이유는 아마도 경전 공부로 불교에 대해서 웬만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며 새로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문자적으로 이해해 본 의미이며 화두 수행

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이를 불교 용어죠. 화두를 깬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화두를 깨기 위해서 경허 스님은 밤을 새워가며 집중 참선을 합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잠을 쫓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잠을 쫓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님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무릎을 찔러 잠을 깨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끈을 매달아서 천장에 묶어 두어 졸려서 고개가 떨어지는 순간 머리카락이 딱 당겨져 잠을 깨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수행을 한 지 3개월이 되던 즈음 경허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허 스님의 행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사미승이 옆에서 시중을 드는데 속성은 이씨라. 그의 부친이 좌선을 여러 해 동안 하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 처사라고 부르는데 사미의 사부가 마침 그 집에 와서 처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처사가 말하기를 ‘중이 필경에는 소가 된다.’ 하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신도의 시주만을 받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갚게 된다고 말했다.’

처사가 꾸짖어 이르기를 ‘소위의 사문의 대답이 이렇게 도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이르기를 ‘나는 선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하니 처사가 이르기를 ‘어찌 소가 되기는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는고?’

그 스님이 묵묵히 돌아가서 사미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던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사미가 이르기를 ‘지금 주실 화상이 선 공부를 심히 간절히 하여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을 지경으로 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은 이치를 알지라. 사부께서는 가서 물으소서.’

그 스님이 홀연히 가서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이 처사의 말을 전하는데 소가 콧구멍이 없다는 말에 이르러 화상이 안목이 정히 움직여 옛 부처 나가진 소식이 활연히 앞에 나타나고 대지가 꺼지고 물질과 나를 함께 잊으니 곧 옛사람의 크고 쉬고 쉬는 경지에 도달한 지라. 백천 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 기와가 깨어지듯 하니 때는 고종 16년 기묘 동짓달 보름께였다.

말이 고문투라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미승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직 정식 승려가 되기 전의 예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는 행자라고 하여 절의 일을 돕는 수련 과정을 거치고 사미의 10가지 계율을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됩니다.

10가지 계율은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사된 음행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향수 바르거나 머리 꾸미지 않기, 춤추거나 노래하지 않기, 밥때가 아닌데 먹지 않기, 편한 잠자리에 눕지 않기 그다음에 금은보화를 지니지 않기입니다. 수행자

로 지켜야 하는 계율이기에 욕망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미는 이후에 지켜야 할 250계인 구족계를 받는 수계식을 거쳐 정식 승려인 비구가 됩니다.

여성은 사미니라고 하고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구족계가 348계입니다. 조선 시대 때는 어린 출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미승은 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속성이란 출가하기 이전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사란 불교에서 남자 신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여자 신도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부르는데 처사와 거사의 차이는 원래 처사는 절에 머무르며 절의 잡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일컬으며 거사는 절에 머무르지 않는 남자 신도를 말합니다. 본래 거사라는 용어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율을 지키는 남녀 신도 일반 모두를 일컬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불교를 폄하하고 억압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 세속적인 출세에 욕망을 가지지 않아 절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을 낮추어 보아서 처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여자들은 사찰에 많은 시주를 하며 불교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처사와 거사를 큰 의미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미의 이름을 원규라고 하고 원규의 사부는 동학사의 사무 일을 담당하던 도일 스님이라고 합니다. 즉, 이 대화는 도일 스님과 원규의 아버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도일 스님과 원규의 아버지가 중, 중은 스님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문은 사문도 스님을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중이 소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승려가 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일 스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규의 아버지인 처사는 스님의 대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도일 스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지혜를 나눠 달라고 합니다.

선지란 선 수행을 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알게 된 지혜를 말합니다. 선 수행을 하면 깊은 명상 속에서 초월 체험을 통해 본래 자신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으나 경험을 한 이들은 자신들만의 말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깨달음을 확인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처사는 ‘어찌 소가 되기는 되어도 콧구멍을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는고?’라고 대답해 주었으나 도일 스님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경허 스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사미승과의 대화에서 주실 스님이라는 것은 경허 스님을 지칭합니다.

도일 스님의 대화 내용을 전해 듣던 중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다가 경허 스님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옛 부처의 나가진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에 부처가 깨달은 내용을 경허 스님도 똑같이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 구절이었을까요? 소는 사람이 코뚜레를 뚫으면 사람에게 길들어 사람의 일을 돕고 살게 됩니다. 소는 소인데 콧구멍이 없어서 코뚜레를 뚫을 수 없는 소이기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승려에게 소라고 했으니 소는 소이지만 어딘가에 얽매인 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얽매 수 없는 자유로운 소라고 대답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처사가 원하는 대답이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정확하게 어떤 깨달음을 경허 스님에게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경허 스님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온몸으로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합니다. 그동안 쌓여 있던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드라 마틱합니다. 대지가 꺼지고 즉, 땅이 꺼지듯이 쑥 몸이 내려가고 물질 즉, 대상과 나의 구분을 함께 잊었다고 합니다.

나를 나라고 인지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구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자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의 이미지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원래는 이 둘의 구분이 없는 데 우리의 뇌 속의 자의식이 작동하면서 나와 대상 세계를 구분하고 대상 세계를 향해 우리가 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명상은 이 심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때에도 마음은 원숭이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때문에 화두 수행에서는 화두에, 호흡 수행에서는 호흡에 우리의 의식을 묶어둡니다. 그러다가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르러 어느 순간 그 구분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본모습과 마주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와 대상의 구분이 깨지고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 즉, 물아일체의 체험을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옛사람이 쉬고 쉬는 경지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다른 대상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 상태에 머무른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은 나의 본래 모습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경전의 의문들이 해소됩니다. 그 상태를 종종 얻었던 얼음이 풀리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이 풀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날이 고종 16년 1879년 음력 12월이 됩니다. 이때의 순간에 대해 경허 스님은 깨달음의 시인 오도송을 짓습니다.

‘홀연히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몰록 삼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후 일상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와 대상 세계가 하나가 되는 초월적 체험을 통해 나의 참모습을 마주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경허 스님의 삶은 이후 달라졌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경허 선사의 약보에서 ‘이때부터 육신을 초탈하여 작은 일에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자제하여 유유자적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몸과 몸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1-3

경허와 소

경허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불교에서의 ‘소’의 의미와 경허 스님이 지은 심우도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허 스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문구가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을 앞의 강의에서 배우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계속 소가 나옵니다. 그의 유명한 본문은 ‘진흙 소의 울음’이며 ‘심우도’라는 불교에서 유명한 그림에 대하여 두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소는 불교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힌두교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소를 신성한 동물로 봅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 소는 개개인 안에 있는 참된 불성, 부처의 마음, 부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심우도는 이 소를 찾아가는 10단계를 그린 그림으로 즉, 깨달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빗대어 그린 그림입니다.

심우도는 심우도라고도 하고 목우도라고도 합니다. 즉, 10개의 소의 그림 또는 소를 찾는 그림 그리고 소를 기르는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소를 그리지만 티베트나 다른 지역에서는 말 또는 코끼리를 그려서 심마도, 심상도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한용운 스님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한용운 스님이 지은 집 이름이 심우장인 것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심우도 또는 심우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마주하는 그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1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우입니다. 심우는 사람이 본래 가진 청정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 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그 소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견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소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점점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자취를 이해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 흔적들을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이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 분들은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이 발자국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어떤 동물의 발자국인지, 이 동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파악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국을 보아도 이게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허 스님이 3개월 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물론 중간에 어떤 계기는 있었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견적은 내가 공부한 만큼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견우입니다. 발자국을 쫓아 쫓아 가 보니 소, 내 안의 부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익힘으로써 우리의 본래 마음인 불성, 그 소가 있다는 것을 딱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되면 그걸 쫓아가서 잡아야겠죠. 마침내 내 본래 마음의 상태, 부처의 마음 상태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참마음을 보게 됐다는 상태가 득우입니다. 사실은 여기 까지가 혜능 스님이 이야기했던 ‘돈오’, 갑자기 내 참모습과 마주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십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본래 마음이 부처라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내가 대상과 나를 계속 분별해서 보는 마음의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릴 적에 닭한테 머리를 쪼였던 경험이 있으면 닭이든 새든 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깨달음을 통해 ‘내가 그런 경험 때문에 이 닭을 무서워하는구나.’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그 닭에 대한 무서움증을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닭을 봤을 때 ‘괜찮아, 재 나 공격하지 않아.’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옛날 습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묵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갈색의 소가 하얀색으로 조금 변해 있죠. 전화를 시킨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귀우귀가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시면 소 몸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화돼서 이제는 분별적 사유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뇌나 업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네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망우존인이라고 합니다. 소를 잊고 나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나를 못 잊습니다. 그 말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내게 좋은 것을 찾고 싫은 것을 피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여덟 번째, 인우구망입니다. 이제 나 중심적인 생각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볼 수 있지도 않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여러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나도 나의 감각 작용과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있는데 나의 자의식이 이것을 다 묶어서 나라고 묶어두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든 다른 존재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생명의 흐름이라고만 인지하면서 어느 하나에도 애착하지 않는 상태가 인우구망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또 두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반본환원 즉, 근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여러 세상들이 그냥 있는 그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

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대상을 구분해서 보았는데 소를 찾고 참된 부처의 마음에서 보니 다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처의 마음으로 보니까 ‘세상은 여러 이념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닭은 닭이고 나는 나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봅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 깨달은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진 세계와 조화롭게 살아야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전수수, 번뇌로 더럽혀진 세상에 들어가 손을 드리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세상 속에 다시 돌아가 그 안의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게 도와주며 사는 것이 입전수수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것처럼 말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내가 닭에 대한 쪼였던 기억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나면 닭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나도 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게 나만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나의 그런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됐고 닭은 본능대로 두려우니까 나를 쪼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닭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없고 귀엽다는 그냥 특별한 마음 없이 그러나 때로는 귀엽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입전수수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십우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혜능의 돈오와 신수의 점수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찾은 후에 흰 소가 될 수 있게 길들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돈오점수’ 이거는 고려 시대 때 지눌 스님이 정리한 수행법인데요. 이 수행법이 한국 선불교에서는 기본 수행법이 됩니다.

이 십우도의 10단계의 수행법을 경허 스님은 8가지로 줄입니다. 견우와 득우를 하나로 합치고 반본환원과 입전수수를 둘로 합칩니다. 경허 스님의 방식도 나름 합리적인 게 소를 보고 얻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혜능의 돈오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반본환원과 입전수수는 깨달음과 그에 대한 실천이므로 함께 묶는 게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우도에 대한 스님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를 찾다.

가히 우습구나, 소 찾는 이여.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

별 비긴 잡초 우거진 길에 소 찾는 일이 실로 아득하기만 하구나.

2, 자취를 보다.

원숭이와 새들은 봄이 와서 즐거워하는데 아직 옛길을 모르지 못해서 근심스럽구나.

이 가운데 소의 소식이 있는데 그 발자국은 깊은 숲 속으로 향해 있구나.

3, 온전히 드러나다.

오랜 세월을 서로 함께하였는데 갑자기 한 곳이 뚫렸구나.
일찍이 듣자니 설산 속에 소젖 향기가 만년이나 머물렀다지.

4, 소를 길들이다.

풀밭에 놓아먹인 지 얼마였던가.
실로 고삐를 놓아버리기 어려웠네.
다행히 오늘의 노력함이 있어 강산을 모두 내가 거두었구나.

5, 자유롭게 집에 돌아오다.

동쪽과 서쪽도 안팎도 없거늘 자유롭게 집을 향해 가노라.
구멍 없는 피리를 부나 소리소리마다 자유롭게 어렵다.

6, 소는 있고 사람만 있다.

바람 앞에서 등불과 물거품이 다하였는데 무슨 가르침을 다시 구하려 하는가.
장안의 큰길에 말하니 소리 앞에 아직 쉬지 못하였다 한다.

7, 사람과 소를 모두 잇다.

적광토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털방울 하나 더 얻었네.
이 가르침은 별다른 게 없으니 산은 높고 물은 저절로 흐르는구나.

8, 다른 종류 속의 일.

털가죽을 쓰고 머리에는 뿔을 이고 등잔불 옆에서 지껄인다.
불조의 지금 육신 밖으로 오랜 세월 저잣거리를 쏘다니네.

첫 번째 연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점 즉,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찾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를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은 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 자취를 보기는 했는데 흔적만 본 것이라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안함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은 드디어 소를 본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산을 동아시아 불교에서 붓다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진 히말라야산이며 소젖 향기는 붓다가 불성을 깨달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후대에 전해지고 있음을 향기가 만년이나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은 목우로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이 주는 힌트를 찾아 따라가다 나의 부처의 마음을 만났지만 내적 불안으로 어떻게든 마음의 고삐를 죄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고삐를 놓아버렸다는 것은 드디어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의 마음을 회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 온 우주가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강산을 모두 내가 거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은 이제 자유로워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아님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멍 없는 피리는 콧구멍 없는 소처럼 본래 어디에 제약받지 않는 존재를 말하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피리 소리가 소리소리마다 자유롭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자유롭게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나 아직은 매 순간순간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음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나 무언가를 배워서라도 부처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게 십우도에서의 망우존인의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우구망의 단계입니다. 적광토는 부처님이 머무는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제는 욕심도 내려놓아서 삶의 매 순간이 본래 마음인 불성의 작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대로 놓고 물은 흐르는 것처럼 부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이를 선불교에서는 일상의 모든 것이 부처의 마음이 작용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연에서 불조는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 또는 부처와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란 이전의 선사들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경허 스님 이전의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홀로 부처의 마음을 얻어 혼자만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다시 소가 되어 사람들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털가죽을 쓰고 머리에는 뿔을 이고 등잔불 옆에서 지껄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러한 삶은 경허 스님만이 아니라 이전의 깨달은 사람들도 해왔던 길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존의 십우도의 설명과 비교해 보면 경허 스님의 시는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수행자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는 경허 스님의 일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고도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정진하고 그 이후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기행을 통해 사람들의 깨달음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1-4

경허의 사상

이번 시간에는 경허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경허 스님의 본문을 모아놓은 진흥 소의 울음에서 경허 스님은 수행자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상하며 인간에게 내일이란 보증된 것이 아니기에 게으름을 피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나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미룹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실성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다음 날 아침을 맞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때로는 너무 덧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세상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끊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또는 관심이 없는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마음이 반응해서 아름답게 꾸미게 해 줄 수 있는 화장품이나 옷을 자주 보게 되고 사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걸 내버려 두게 되면 사실은 내가 해야 할 것인 수행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에 대한 나의 관심과 마음의 작용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지.’ 이러면 또 거기에 얽매어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코끼리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해서 계속 마음이 가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알아채고 다시 내가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면 해야 하는 것으로 돌아오고 알아채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로 또 갔네.’ 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거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너무 얽매어서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사실 내 경험에 따라서 그려진 세상입니다. 제가 보는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과연 똑같은가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에게 세상은 신뢰할 만하고 따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 세상은 잿빛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의 선함을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

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우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선함과 악함,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허 스님은 다른 데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화두에 집중하여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참된 나의 부처의 마음을 보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불교 신자들이 중시하는 보살이 지켜야 할 6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마음의 상태와 연결시켜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저, 지혜의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보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요.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정진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좋은 행동은 끊임없이 쉼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의 구분 기준은 불교에서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허 스님은 어떻게 마음의 상태와 연결시켜 설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속이 공명하여 한 물건도 없어 육근이 텅 빈 자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보시이며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바로 지계이며 이 겸허하고 유연한 마음이 바로 인욕이며 이 본래 밝음이 항상 드러나 어둡지 않은 것이 정진이며 이 밝고 고요함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선정이며 이 밝고 고요함이 또렷하여 법을 간택하고 공을 관찰하는 것, 본래 스스로 우치하지 않는 것, 모든 법상을 분별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 내지 세상 인연에 수순하여 장애가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즉, 가슴이 공명한다는 것은 마음이 맑다는 것입니다. 육근은 6가지 감각 기관인 눈, 코, 귀, 혀, 몸 그다음에 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물건은 자의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어 육근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인식할 때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별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옳고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애착이 없는 마음 상태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외적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단정하고 맑게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의 지계이며 인욕은 겸손한 마음에서 행동하는 참는 것이 인욕입니다. 나에 대한 우월감이 없기에 내가 참아준다는 생각도 없이 참을 수 있습니다.

정진에 대한 설명은 좀 색다른데요. 경허 스님이 설명하는 정진은 힘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이는 내 안에 부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작용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부처의 마음을 유지하기에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

은 게 선정입니다.

우치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법상은 대상 세계의 모습을 말합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과 만났을 때 업이나 습관적 사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라 보고 놀란 이는 솔뚜껑만 봐도 놀라지만 지혜가 있는 이는 경험으로 형성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솔뚜껑을 솔뚜껑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호수같이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시한 모습은 조금은 엄격하지만 사실 경허 스님의 삶에는 기행 즉, 기이한 행적과 파격이 가득합니다. 이를 한쪽에서는 깨달은 경허 스님만이 할 수 있는 무애행, 걸림 없는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파계승이라고 평가합니다.

무애행은 불교의 계율이든 사회적 틀이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깨달은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가 무애행을 본뜬 행위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무애행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음의 체험을 한 뒤 6년 동안 경허 스님은 이를 점검하는 보림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을 마친 뒤 자신의 옷과 탁발하는 바가지, 큰스님임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주장자를 비롯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무애행을 시작합니다.

경허 스님의 무애행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여성과의 동침 이야기입니다. 해인사에 계실 때 스님이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한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주무셨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승려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계율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만공 스님은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스님께서 주무신다며 사람들을 돌려보내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경허 스님이 여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이목구비를 분간할 수 없고 손가락도 문드러져 있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심지어 고름 등의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방에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은 대상을 차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인 여인과 함께 지내며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둥병 환자와의 동거는 성적 욕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고 자비심 있는 승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제자인 만공 스님과 탁발을 다니던 이야기입니다. 탁발은 스님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탁발을 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자 지친 만공 스님이 자꾸 쉬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마을에 이르러 우물가 근처를 지나는데 경허 스님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처녀에게 달려가서 동네 한복판에서 그 처녀의 양 귀를 잡고 입을 맞춰 버렸습니다. 그 순간 처녀는 너무 놀라서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고 이를 목격한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스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졸지에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얼마를 달려 사람들을 따돌리고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숨을 고르며 만공 스님

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경허 스님이 ‘아직도 다리가 피곤해서 걷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피로해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선의 정신은 한국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현대 사회의 정서에서 보면 어찌 보면 제자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한 여성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기행에 대해 제자들은 불편해하는 이도 있었고 이를 무애행이라고 이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계율로서 금지하고 있는데 경허 스님은 술을 드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시봉하던 어린 스님이 매번 경허 스님의 술상을 차려 드리는 것이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 안주에 비상, 일종의 독극물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비상을 털어내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안주와 술을 다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무애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따위는 없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매 순간 행동하셨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덕행이 높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제산 스님은 경허 스님의 무애행에 강한 확신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경허 스님께 곡차와 닭고기를 준비해 드리리라.’ 또한 경허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은 ‘나는 경허 스님을 위해서라면 깊은 산중에 모시고 살다가 양식도 떨어지면 내 살점을 올려서라도 스님의 생명을 유지케 하여 중생을 제도하시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경허 스님에 대한 신뢰는 이처럼 컸습니다. 분명 경허 스님의 행적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 2명의 불교학자는 경허 스님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권상로는 ‘한국선종약사’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이 큰 지혜에 거리낌이 없으니 도독질과 음행이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음행은 사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세인들이 이르기를 경허화상은 변재가 있고 그가 설한 법은 비록 고조사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저 제멋대로일 뿐이고 아무런 구속도 없이 음행과 투도를 범하는 일조차 거리낌이 없었다.

세상의 선류들은 이를 다투어 본받아 음주 식육이 보리와 깨달음과 무관하고 행음행도와 반야, 지혜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다투어 말하고 이를 대승선이라 하여 수행이 없는 잘못을 가리고 덮어서 모두가 진흙탕으로 들어갔으니 이러한 폐풍은 실로 경허에서 그 원형이 시작된 것이다. 총림은 이를 지목하여 마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변재가 있다는 것은 말재주가 좋다는 것이며 고조사는 이전의 선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류라는 것은 선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허 스님이 말재주가 매우 뛰어나

났는데 계율을 어기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행하는 이들이 이를 대승선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승선, 대승의 선정에는 2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술을 예로 들자면 일반 대승선의 단계에서는 술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대승선의 단계에서는 술이나 고기를 보았을 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상태, 나아가 매이지 않으려는 마음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즉, 술을 마시든 술을 마시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애행은 최고의 대승선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선 일화에서 보면 경허 스님은 최고의 대승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능화의 말처럼 승려 중에는 경허 스님의 파계적 행동을 흉내 내면서 마치 자신이 최고의 대승선을 행하고 있다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의 일대기에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좋으나 행동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허 스님의 기행 중 흥미로운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때리게 하는 일화입니다.

하루는 해인사 근처 고갯마루에서 나무꾼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나를 아느냐?’라고 말을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보이느냐?’라고 물으니 아이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이들에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내가 보이기는 하는가?’라고 중얼거리며 아이들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희가 만일 이 지팡이로 나를 때리기만 하면 내가 과자 사 먹을 돈을 주겠다. 한번 때려 보아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때리기를 주저하였는데 용기 있던 아이가 한 명 나서서 정말 때려도 되느냐고 확인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은 맞으면서도 ‘왜 나를 때리지 않니, 네가 나를 때리기만 하면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때리고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와 역대의 조사부터 천하의 늙은 스님을 한데로 때려 치울 수 있을 텐데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때리던 아이가 좀 당황하면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때렸는데도 안 때렸다 하시니 스님이 돈을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스님은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다음의 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흐릿한데 나 혼자 깨어 있나니 숲 속에 숨어 남은 생애를 지내느니만 같지 못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맞으면서도 나를 때리지 않느냐고 할 때 여기에서 나란 불교에서 말하는 참 나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깨달음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견 또 마치 자신에게 별주듯 한 이런 행위는 또 왜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실마리는 일제 강점기 김태흡의 ‘인간 경허’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엄사 수도암에서 경허 스님과 함께 머물던 진흥 스님이 하루는 경허 스님의 계율을 어기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경허 스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출가했던 청계산은 결혼한 승려들이 있던 곳으로 여러 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들어서 이 습관이 본성이 되어서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어쩌면 맞는 행위는 몸에 깊이 밴 습관을 극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1905년 만공 스님에게 전법계를 주고 즉,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경허 스님은 갑자기 사라져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

이 머리를 기르고 황해도 지역에서 훈장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가 그의 임종의 시를 받아와 세상에 알렸습니다.

‘마음의 달 홀로 둥글어 그 빛이 온갖 세상을 삼켰구나.
빛과 경계 다 잊었거늘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

1-5

선불교의 중흥

이번 시간에는 경허 스님이 어떻게 선불교를 다시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되살리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경허 스님은 깨달음을 스승에게 인가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깨달은 스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깨달음의 시는 다음의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가 전해 주느냐.
의발을 누가 전해 줄 거냐.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의발은 승려가 입는 옷인 가사와 밥그릇인 발우를 말합니다. 의발을 전한다는 것은 법통을 전한다는 것으로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했을 때 그 상징으로 제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인가해 줄 스승도 없는 현실 속에서 경허 스님은 조선 불교의 수행 전통을 다시 되살려 후학을 길러 내며 선맥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경허 스님은 자신의 수행 전통의 계보를 용암 혜언 스님에게 연결 지었는데 이를 따라서 올라 올라가다 보면 휴정 스님 즉, 서산대사의 12세손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불교는 스승과 제자를 부자 관계로 보고 집안의 자손이 대를 잇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경허 스님은 서산대사를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경허 스님은 천장암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추가 수행인 보림수행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수행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법문도 하면서 훗날 한국 선불교를 이어갈 3명의 제자인 혜월, 만공, 수월을 만납니다.

1884년 혜월은 은사 스님의 추천으로 개심사에 있던 경허 스님을 찾아가 서로 선문답을 주고받은 뒤 경허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같은 해, 잠시 동학사에 들렀을 때 14살이었던 만공 스님을 만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수월 스님은 당시 천장암에 같이 있었던 태허 스님의 제자였는데 이후 경허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경허 스님은 책 속에 박제되어 있던 선불교를 현재에 살아 있는 것으로 되살렸습니다. 천장암에 머물 때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한 법문을 할 테니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속가의 어머니도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옷을 벗고 알몸뚱이 몸으로 어머니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알몸의 아들을 밀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에 경허 스님은 한참을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법문으로 강의로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관계의 무상함이 느껴졌기에 통곡했다고 합니다. 경허 스님이 갓난아이였을 적에는 어머니가 발가벗은 몸을 씻기고 안아주며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머니는 그의 알몸을 보고 질색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변하는 그 무상함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허 스님의 파격적인 형태의 법문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 선불교 어록을 보면 이 경우처럼 알몸을 보인 경우는 없지만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는 고양이를 죽인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깨달음의 계기를 주었습니다.

태평상인이라는 승려와 경허 스님이 선문답을 나눌 때도 이런 때리는 행동을 하며 상대와 선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허 스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태평상인이 경허 스님을 찾아옵니다. 태평상인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경허 스님은 대뜸 지팡이로 그를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태평상인이 ‘때리는 것은 좋소만 그렇다고 그것이 달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에 대해 답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허 스님이 이번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태평상인이 지팡이로 경허 스님을 쳤습니다. 얻어맞은 경허 스님이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로는 흠뉘이를 쫓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태평상인이 태도를 공손히 바꾸어 ‘법의 은혜가 망극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허 스님은 웃으며 법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라는 화두는 선사들끼리 서로의 깨달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한로는 중국 한나라 때 개 이름이며 흠뉘이를 쫓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동물입니다. 한로가 흠뉘이를 쫓는 이야기는 대주혜해 선사의 일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율을 정통한 한 스님이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읽고 계율을 실천하는 일을 왜 견성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의 본성을 보는 것이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혜해 선사는 ‘이는 미친개가 흠뉘이를 쫓는 것과 같다. 수행은 사자가 사람 물 듯이 해야 하는데 경전을 읽고 계율을 실천하는 일은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것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본래 모습 자체란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전을 읽고 계율을 실천하는 것은 나보다 바깥에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일 뿐 내가 보아야 할 나의 참모습, 나의 부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직접적 수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부처의 성품을 보는 공부라고 하지 않고 이를 위한 방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경허 스님의 일화로 돌아가 보면 태평상인의 질문은 흠뉘이를 쫓는 개처럼 본질을 떠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자 태평상인이 공손한 태도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서로 간에 치고받는 기이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전통적인 선사들처럼 서로 간의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1899년에 해인사에 머물면서 경허 스님은 결사 운동을 시작합니다. 결사는 고려 시대 보조 지눌 스님이 기존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위해 시도했던 새로운 신앙 공동체 운동입니다.

경허 스님의 결사 운동은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사는 뛰어난 수행 능력을 가진 이들의 공동체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는 자격을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선정 수행과 경전 공부를 함께하는 정혜쌍수의 수행을 통해서 이후 도솔천이라는 불교의 천상 세계에 태어나 함께 수행하며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불보살의 도움으로 정토에 태어나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타력 신앙이 함께 존재합니다. 정토란 뛰어난 부처와 보살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만든 세상입니다. 잘 알려진 정토로는 아미타 부처의 서방정토가 있습니다.

경허 스님이 말한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곳입니다. 미륵보살은 미래에 올 부처님으로 도솔천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지상으로 내려와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베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제 시대 때는 이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자력 수행을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기에 지눌 스님도 선 수행과 정토 사상을 접목시켰으며 경허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력 신앙은 불교의 구원의 문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허 스님은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게 결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표자로 둘 것인지, 수행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금욕적인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음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깊이 경계하셨으니 술을 마시거나 음행을 한 사람은 단연코 축출해야 한다. 그리고 의복은 6일이 되기 전에는 세탁해서는 안 된다.’ 술과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계율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흥미롭게도 경허 스님은 무애행을 행하며 이를 위반하는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행 때문에 사람들은 선불교에 주목하게 되었고 또한 경허 스님이 선불교의 정신을 되살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경허 스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경허 스님은 사라져가던 조선 선불교의 바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스님 이후에 한국 불교는 선불교를 생생하게 다시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기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의 기행으로 인해서 선불교가 중흥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기행이 고치지 못한 습관이었는지, 선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방편적 행동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종계를 통해서 쉽고 평탄한 길과 어렵고 험난한 길, 그 두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며 홀로 둥글고자 했던 한 수행자의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허 스님에 대해 세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훌륭할 때는 부처보다도 훌륭하고 악할 때는 호랑이보다도 악하다.’

Ⅲ. 퀴즈

1. 객관식 퀴즈

문제: 선불교와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이다.
- ② 교외별전이라고 한다.
- ③ 언어로 설명불가한 가르침이다.
- ④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했다.

정답: ③

설명: 불립문자는 깨달음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언어로 설명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다.

2. 객관식 퀴즈

문제: 다음 중 경허스님이 들었던 화두는?

- ① 마삼근
- ② 여사미거 마사도래
- ③ 뜰 앞에 잣나무
- ④ 무

정답: ②

설명: 경허스님이 실존적 문제를 마주하고 동학사로 돌아와 참선할 때 사용했던 화두는 '여사미거 마사도래(당나귀의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가왔다)' 이다.

3. OX퀴즈

문제: 심우도에서 소는 사람의 본래 마음인 부처의 마음을 상징한다.

정답: ○

설명: 심우도는 본래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이다.

4. OX퀴즈

문제: 이능화는 경허스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정답: ○

설명: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세인들이 이르기를 경허화상은 변재가 있고 그가 설한 법은 비록 고조사(古祖師)라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저 제멋대로일 뿐이요, 아무런 구속도 없이 음행과 투도(偷盜)를 범하는 일조차 거리낌이 없었다. 세상의 선류(禪流)들은 이를 다투어 본받아 음주식육이 보리와 무관하고 행음행도(行淫行盜)가 반야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다투어 말하고 이를 대승선이라 하여 수행이 없는 잘못을 가리고 덮어서 모두가 진흙탕으로 들어갔으니 이러한 폐풍은 실로 경허에서 그 원형이 시작된 것이다. 총림은 이를 지목하여 마설(魔說)이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5. 주관식 퀴즈

문제: 경허스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구절은?

정답: 콧구멍 없는 소

설명: 동화사에서 수행 시 전해들은 이 표현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IV. 토론

□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경허스님의 무애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보자.

V. 참고문헌

- ❑ 정운스님, <[인물로 읽는 한국 선사상사] 61. 영원한 선지식 경허>, 《불교신문》, 2019.06.21.
- ❑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35>
- ❑ Jin Y. Park, "A Crazy Drunken Monk: Kyŏnghŏ and Modern Buddhist Meditation Practice", In Korean Religion in Practice,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 Jin. Y. Park ed., *Makers of Modern Korean Buddhism*, SUNY Press, 2010.
- ❑ Gyeongheo, John Jorgensen tras., The Gyeongheo collectio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7.
- ❑ 지혜경/성청환, 『근대불교인물열전』, 세창, 2021.
- ❑ BBS 불교방송, 고승열전 경허대선사, 2021.9.18.
- ❑ <https://www.youtube.com/watch?v=OoMOqMfGb0gW>